

한국 근현대건축에 나타난 전통성 표현에 관한 연구

정순영

(성균관대학교 대학원)

윤인석

(성균관대학교 건축학과 부교수)

1. 서론

한국건축의 전통론은 1966년 舊 국립중앙박물관 현상설계의 설계지침 내용¹⁾에 대한 논란에서부터 제기되었다. 그리고 그 즈음에 지어진 국립부여박물관의 형태가 일본 무사의 투구를 연상시킨다는 시비로 정통성 문제에까지 결부되어 전통론은 건축계 전반의 쟁점으로 확산되었다. 이후 한식목조건축의 형태수용에 대한 평가는 부정적으로 일관되어 학계에서 언급조차 회피하기에 이르렀다. 그러나 1970년대 '조국근대화'를 가치로 개발에 여념이 없던 시대에도, 1980년대 후반 양대 국제적 체육행사를 치르면서 문화 인프라 구축에 힘을 썼던 시대에도, 또한 1990년대 건축가 각자의 개성이 뚜렷이 드러나는 시대에도 전통표현은 끊임없이 이어지고 있다.

이러한 현상은 한국 근대건축²⁾에 있어서도

마찬가지로 나타난다. 실제 대부분의 선행연구가 그 시간적 범위를 1960년대 이후부터 설정하고 있다. 그러나 19세기 말 문호를 개방하고 외래 건축문화가 유입되면서 전래의 목조 중심의 한국건축은 변화하였고 이 과정에서 전통의 수용 내지 계승의 연구가 시작되었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개항 이후부터 현재까지 한국건축에 나타난 전통표현에 대하여 다음의 세 가지 초점을 가지고 고찰하고 그 의미를 분석하고자 한다.

첫째, 1960년대 이후 현대건축이 집중되었던 전통표현에 대한 연구에서 시각을 넓혀 근대건축에 나타난 전통표현의 의미와 사례를 분석하여 보고, 둘째, 많은 연구에서 1945년 광복 이전까지의 근대건축과 그 이후를 현대건축으로 설정해 놓고도 1945년에서 1960년대 초까지를 공백기 내지 과도기로 보고 이 기간동안의 연구가 미흡했기 때문에 본 논문에서는 근대건축과 본격적인 현대건축을 잇는 연결고리로서 전통표현의 의미를 고찰한다. 셋째, 현대건축에

1. 현상설계 지침 중의 "기존의 전통건축 모사로서 가능한 표현"이라는 문구가 문제가 되었다.(한국건축가협회 엮음, 『한국의 현대건축』(서울: 기문당, 1996), 123쪽에서 인용)
2. 본 논문에서 한국 근대건축이라 함은 병자수호조약(1876) 이후부터 광복(1945)에 이르는 시기의 건축

으로, 현대건축이라 함은 광복 이후부터 현재에 이르는 시기의 건축으로 설정한다. 그러나 본 고에서는 이를 세분하여 현대기에 속하는 광복부터 1960년까지를 과도기로 보고 논하고자 한다.



그림 1 강화 성공회 성당(1900) 정면
고종의 허락을 받아 궁궐목수에 의하여 지어진 이 성당은 한식목조건축 형식이며 山寺의 배치 형식을 따르고 있다. 다만 지붕의 박공면 쪽에서 출입하는 것이 조금 다르다. 후면에 배치된 사제관도 민가형식을 띠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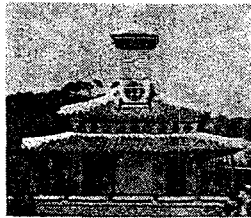


그림 2 화산성당(1906)
(출처: 김정신, "한국의 성당건축", 건축문화 8408)
중층으로 구성되어 지붕과 지붕 사이를 고딕성당의 클리어스토리와 같이 전통적인 팔각형 불빛이창을 두었다. 창살을 십자가형태로 디자인하여 종교적 분위기를 돋우었다.



그림 3 경성소방서
(출처: 김정동, 『한국근대건축의 재조명』, 건축사8811)
초기의 경성소방서는 한옥을 개조하여 사용하였다. 전면에 칩을 없애고 문을 달아 수차 등을 두었던 것으로 보인다. 지붕 뒤 왼쪽으로 희미하게 가설의 망루가 보인다.



그림 4 전주역사(1927) 외관
전면에 합각지붕으로 돌출된 곳이 주출입구로 서양의 포티코 형태를 보이고 있다. 전체가 목조로 단청을 칠하였으며 현재의 신역사로 옮기기 전까지 사용하였다. 용마루 너머로 난방시설의 흔적인 굴뚝이 보인다.

다양하게 나타난 전통표현의 경향을 살펴보고, 각 의미에 대하여 알아본다.

본문은 세 시기로 나누어 각각 전통적인 목조건축형식을 직접적으로 표현한 것부터 이 형식을 변형하여 표현한 것을 살펴본다.

2. 개항부터 광복까지의 건축

근대기의 한국건축은 이질적인 기능이 유입되면서 조금씩 변화하기 시작하였다. 외래 종교시설부터 근대적 설비시설에 이르기까지 건축은 여러 면에서 변화하였다.

2. 1. 한식목조건축형식을 그대로 혹은 일부 변형한 것

이 형식으로는 외래문화인 종교를 수용한 한옥의 종교시설이 대표적이다. 한옥예배당이 나타난 것은 외래종교가 포교를 목적으로 하고 있었기 때문에 주민들과 호흡을 함께 함으로써 원활한 포교를 도모하는 데에 의의가 있다. 이러한 시설은 18세기 말에 조금씩 나타났

다가 1920년대에 들어서면서 줄어들었다.

한옥성당의 특징으로는 전통한옥의 종·횡축을 바꾸었으므로 목조가구법의 특성에 따라 신도들의 숫자에 능동적으로 대응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뿐만 아니라 칸의 개념으로 고딕성당의 베이 체계를 표현하고 대개 2고주 7랑가의 구조로 되어 네이브와 아일의 삼량식 구성이 가능하다. 한편으로 유교의 가르침은 조선 후기의 지배적인 믿음체계(belief system)이었다. 더욱이 삼강오륜의 하나였던 남녀유별의 항목은 친척이라도 일정한 나이가 되면 남녀가 한자리에 함께 할 수 없었으므로 비록 서양의 종교건축이지만 이를 수용할 수밖에 없었을 것이다. 평양의 장대현 교회는 이러한 관념에 따라 7자의 평면형식으로 되어 있어 한 쪽에는 남자신도의 자리, 다른 한 쪽에는 여자신도의 자리가 마련되어 있으며 서로 만나는 곳에 제단이 있어 목사가 그 자리에서 의식을 거행하였다. 화산성당도 가운데에 칸막이가 있어 남녀 신도들의 자리를 구분하였다.

한식목조건축형식은 상업시설을 중심으로도 널리 자리를 잡았다. 한옥상가는 1900년경부터 단층의 구조에서 복층, 그리고 후면에 주거를 둔 복합시설에 이르기까지 한양절충상가와 함



그림 5 집옥재 전경
건립연대가 명확하지는 않으나 18세기 말 현재의 위치로 옮겨졌다고 하며, 3고주 7량가의 목조이나 좌우측면에 벽돌벽이 따르고 있다. 대체적으로 한식목조를 기본으로 하여 중국식 벽돌쌓기(牙字쌓기), 낙양각 등에 나타난 중국식 문양이 색다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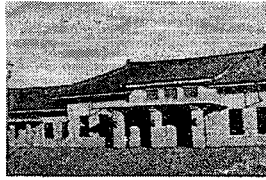


그림 6 경주역사(1937) 외관
(사진출처: 『朝鮮と建築』)
1937년에 새로이 지어진 역사로 외부마감재료를 새로 하여 현재까지 사용하고 있다. 경주역사의 지붕은 용마루에서 함께 내어온 지붕면을 정면중앙의 포티코 부분에서 들어올린 것으로 일본식이다.



그림 7 동산성경학교(1914)
대구 계산성당 산하의 교육시설로 벽돌조의 건물에 한식지붕을 얹었다. 단순한 평면을로 처리하여 매스감을 더하였고 그 위에 무게감이 있는 기와지붕을 얹어 안정적인 비례감을 꾀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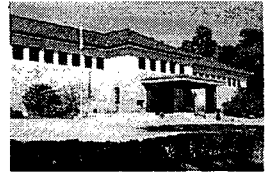


그림 8 구 총독부 미술관
1939년에 일본인에 의하여 제관양식으로 계획된 미술관이다. 단순한 박스형의 건물 몸체에 단순하게 변형시킨 동양식의 지붕을 얹었다.

계 근대건축의 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한옥 상가는 종루, 이현(지금의 배오개길), 남대문의 칠패 거리를 중심으로 하여 건립되었다. 간혹 개간있는 목수에 의하여 전면벽에 간이진열대를 마련하고, 이것을 접으면 유리창을 덮을 수 있게 되어 벽을 이루고, 다시 펼치면 진열대가 되게 하였다.

근대기능을 수용한 한옥은 새로운 기능에 맞는 건축을 세우기 전에 잠시 사용되었다. 알렌의 광혜원도 이와 같은 한옥에서 시작하였다가 근대식의 건물을 세우고는 옮겼다고 하며 그것은 교육시설에도 마찬가지였다. 그러나 근대적인 기능들을 받아들이면서 한옥을 변형하여 수용하였다는 것은 앞으로 한옥이 변화하면서 현대의 기능을 수용할 수 있는 가능성들을 제시해 줄 수 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전격적으로 일본의 식민통치가 시작되면서 많은 일본인들이 한국을 관광하였는데 이때에 여흥을 돋우기 위하여 명승지의 기차역을 한식목조건축의 형식을 빌어 세웠다. 철도역사는 대부분 총독부의 철도국 공무과를 중심으로 한 설계집단에 의해서 계획되었기 때문에 한식목조에 약간의 변형이 따랐다. 일반적으로 기단

부가 많이 약화되었으며 근대적 설비로 인하여 형태상 변화가 수반되었다.

근대화는 서울을 근대도시로 바꾸었다. 도로를 정비하여 지역을 구분하고 한양성곽 바깥을 개발하여 새로운 도시영역을 마련하였다. 성북동, 보문동 등 새로이 개발된 주거지역에는 개량한옥군이 들어섰다. 그 배경으로는 1920년대부터 가중되어온 인구의 도시집중화로 야기된 심각한 주택난과 자본주의 체제로 전환되면서 전통장인들이 민간에서 직접 활동해야 하는 상황으로 바뀌었다는 데에 있다. 개량한옥은 기존의 한옥에서 위생설비 등 근대적 설비를 갖추고 의장요소로는 상류층의 주택을 모방하였다. 서민들로서는 건축가들에 의하여 계획된 주택을 소유할 수 없었기 때문에 이들에게 공급된 개량한옥은 많은 인기를 누렸고 각 도시에 공급되었다.

2. 2. 중국·일본 건축형식과 절충

중국과 일본은 지리적으로 한국과 가깝기도 하지만 오랜 시간동안 영향을 주고 받은 관계였고, 개항 이후에도 다른 서구 열강에 비해 비교적 큰 영향을 미쳤다. 건축에 근대화의 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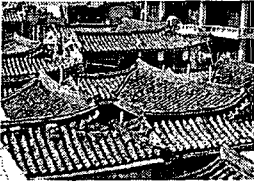


그림 9 보문동 개량한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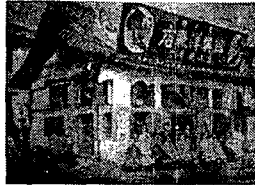


그림 10 한양절충상가

운이 돌면서 벽돌의 사용이 늘어났고 그에 따라 특히 중국에서 많은 기술자들이 유입되어 건축활동에 참여하였다. 중국의 건축형식은 궁궐의 건축에도 나타났으며, 민간에서는 상가를 중심으로 하여 값싼 중국인 노동력을 이용한 건축활동이 활발히 전개되어 한양절충식 건축이 많이 나타났다.

한양절충식 상가는 1900년대에서 1910년을 전후로 하여 남대문로 등 한인상업지역을 중심으로 빠르게 확산되었다. 대개 2층 정도 규모의 한옥에 베란다를 두른다든지, 개구부를 양식으로 꾸며 절충적 경향을 보여주었다. 전통 장인들이 눈썰미로 보았던 서양식 건축요소를 한옥에 적용한 것으로 잠시동안이지만 넓은 지역에 분포하였다.

경술국치를 전후로 하여 한국내 일본의 세력은 점차 확대되었다. 일본인 이주정책에 의하여 전국 곳곳에 일본식 주택이 들어서게 되었고 그에 따라 한옥의 한 칸에 다다미를 까는 등 일본건축형식이 한국의 주택에도 일부 적용되었다. 그러나 일본의 건축형식은 겨울의 혹한에 견디지 못하였으므로 당시 주택에 있어서는 양식과 일식, 한식을 포함하는 건축형식이 대부분이었다.

일부의 공공기관에서는 일식이 확연하게 드러나도록 계획되었는데 이것은 특히 문화정치를 표방하였던 1930년대 이후에 널리 확산되었다.

2. 3. 한식과 양식의 절충

1890년대에 들어서 한국이 서양의 각 나라와 외교관계를 맺으면서 많은 서양인들이 한국에 거주하였다. 이들에 의하여 소개된 서양식 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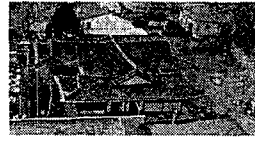


그림 11 경운동 민씨 주택
택
(출처: 『서울건축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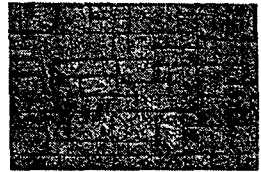


그림 12 보성전문학교
전통창살문양의 벽면

박길룡의 작품으로 내부 (출처: 안창모, 「박동진에
는 洋式要素를 포함하고 관한 연구」)
있다.

축요소들은 장인들의 눈과 손에 의하여 새롭게 해석되어 목조의 건축에 적용되었다.

특히 1920년대 후반에 일본인 젊은 건축가들에 의하여 소개된 모더니즘 건축은 빠른 시간 내에 확산되었다. 그러나 한국건축계의 현실은 모더니즘 건축에 대한 실질적 이해가 충족되지 못하였으므로 모더니즘 건축 속에서 한국적인 건축의 모습을 구현하려고 하였다. 따라서 모더니즘의 박스형 건물물체에 한식지붕이 올라가는 건축형식이 나타나는데 주로 미션계의 교육시설을 중심으로 하여 나타났다.

일본이 제국주의의 이념 하에 세력을 확장해 나가면서 세계에 일본을 과시하기 위하여 帝冠樣式을 개발하였다. 제관양식은 樣式主義 건축 또는 모더니즘의 추상화된 건축 위에 기와지붕을 올려 동양의 이미지를 표현한 것이다. 20세기 초반부터 시작되어 1930년대에 넓게 확산되었다.

박길룡, 박동진과 같이 근대식 건축교육을 받은 한국인 건축가들도 한국건축전통에 대한 연구는 이어졌다. 박길룡의 건축작품은 모더니즘적 요소를 포함하면서도 중후함을 느끼게 하는 건축이다. 그러나 박길룡은 주거에 관한 여러 편의 연구논문을 통하여 근대식 생활에 적합하도록 한옥개선안을 제안하였다. 그중 하나가 박길룡이 계획한 경운동 민씨주택으로 외관은 한식기와지붕을 얹어 한옥의 형태를 띠고 있으면서도 내부계획은 중앙집중식으로 서양식의 구성도 보이고 있다.

박동진은 주로 고딕의 석조건축을 계획하였

는데 그가 고딕양식을 선택한 이유는 일본의 영향력에서 벗어나고자 하는 데에 있다. 즉, 일본이 樣式主義 건축을 수용하면서도 고딕양식으로 지은 건축은 적었다고 한다. 박동진이 고딕양식을 택한 이유가 바로 일본에서는 보기 어려운 양식이기 때문인 것이다. 그리고 석재 쌓기 방법에서 전통적인 창살의 문양을 고려하여 개발하였으며 처마 아랫부분의 장식도 전통적인 장식을 고려하여 표현하였다.³⁾

1997년에 있었던 조선풍주택 현상설계에서 오염설의 계획안이 1등으로 당선되었다. 한옥 단일채로 되었으며 중앙집중식의 평면에 거실(마루) 전면에 창을 달아 난방의 효율을 높였다.

건축가들에 의한 전통표현은 주변의 건축상황과 대치되지 않으면서 한국인들의 정서에도 부합하였으며 당시의 경제적, 생산구조적 상황에도 적합하였다.

2. 4. 소결

개항과 더불어 유입된 이질적인 문화와 기능들은 한국인들의 생활을 변화시켰고, 건축도 변화하였다. 기존의 목조를 중심으로 한 건축생산체계는 구조, 재료부터 달리하는 근본적인 변화를 수반하였고 그에 따라 형태를 달리 할 수밖에 없었다. 새로 유입된 낯선 건축을 본뜬 형태가 유행처럼 번져갔지만 실제로 그 안에서 행해지는 생활양식은 바뀌지 않고 전래의 그것이기 때문에 건축과 그 안의 삶은 서로 괴리된 것이었다.

근대식 건축교육을 받은 건축가들은 물론 여러 선각자들은 이러한 문제를 인식하고 연구를 통하여 바로 잡고자 하였다. 위생문제를 고찰하여 대안을 제시하고 근대도시에 적합한 주거 모델을 연구하였다. 특히 1930년대가 들어서면서 가속화된 도시로의 인구집중은 도시인들의 주거환경을 더욱 열악하게 하였다. 이에 민간으로 나와 활동하던 전통장인 조직을 중심으로

하여 건축청부업자가 생겨났고 보문동, 돈암동 등 도시 외곽부에 개량한옥이 들어섰다. 요컨대 이중구조로 나뉘어 있던 건축조직이 각자의 주어진 환경 속에서 전통의 맥을 이어가고 있었다.

근대건축에 있어 전통론은 개량한옥과 같은 건축가와 전통장인에 의한 주거개선 계획에서 찾아 볼 수 있다. 건축이 생활을 담는 그릇으로써 생활양식을 파악하고 그것을 기초로 하여 생활이 담겨있는 사회의 구조, 경제체제, 효용성 등을 함께 고려하여 표현한다는 것이다. 당시의 목조건축의 생산이 현재의 철근콘크리트 라멘조 건축의 생산보다 효율적이었으며 그 형태가 주변의 대다수의 건축군과 조화되었을 것이다. 따라서 근대건축에 있어 전통표현은 한국인 정서와 밀접한 관계 속에서 표현된 장인들의 창의성이었다.

3. 광복부터 1960년 이전까지

한국이 광복을 맞이한 뒤로 사상과 이념의 대립이 심화되어 통일된 국가체제를 갖추지 못하고 남과 북으로 나뉘어 미국과 소련의 간섭을 받게 되었다. 이 상황이 한국전쟁을 거쳐 전후복구사업에 이르기까지 연장되었기 때문에 남한과 북한으로 대별된 두 진영 사이에는 상당한 괴리를 형성하게 되었다. 결국 민주주의와 사회주의로 양분되는 극심한 이데올로기의 대치상황이 되고 다시 각 지역의 중심사상, 세계관이 되어 건축에 영향을 미쳤다고 할 수 있다.

광복을 맞이하고 각 계는 일본인이 차지하고 있던 자리를 정리하고 새로이 체제를 구축하였다. 건축계도 마찬가지로 일제시대의 건축잡지 『朝鮮と建築』의 간행이 중지되었고 대신 한국건축가들이 주도하여 『朝鮮建築』을 창간하였다. 이 잡지의 창간호에 오염설이 근무하던 공공소의 광고가 실렸는데 광고의 내용에서 조선풍으로 계획된 연립주택 스케치를 볼 수 있다. 이 계획에는 광복의 기쁨과 한국인으로서

3. 안창모, 「박동진에 관한 연구」, 서울대학교 박사학위 논문, 199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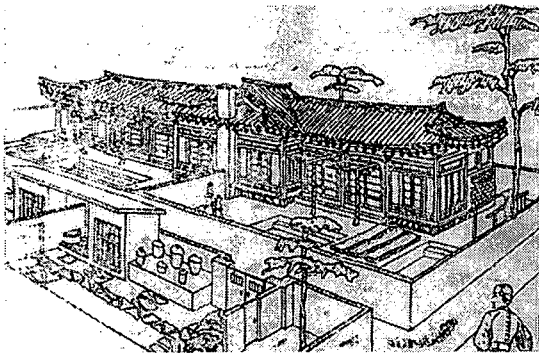


그림 13 오영섭의 조선풍 연립주택의 스키치
(출처: 『朝鮮建築』, 1947년 創刊號)

의 자부심이 깃들여 있다.

한국전쟁이 일어나고 폐허에 가까운 국토를 복구하는 사업은 긴 시간을 요구하였다. 1957년 미국의 원조를 받아 춘천사범학교가 건립되었다. 당시 학교의 시공을 담당하던 사람은 조승원이었는데 그는 당초의 설계대로 철근콘크리트 라멘조 교사를 짓고 있었다. 춘천사범학교 신축공사의 자문을 맡고 있던 미국 피버디 대학 교수 허먼(Hermann) 박사는 한국건축의 아름다움을 이야기하면서 신축할 예정인 도서관의 지붕을 한식으로 하는 것이 어떠냐는 제의를 하였다.⁴⁾ 이에 조승원은 남한 최초로 철근콘크리트 한식지붕을 설계·시공하게 되었다. 현재 도서관은 헐리고 새로 지어져서 그 형태를 알 수가 없으나 한국건축의 아름다운 전통을 계승하고자 했었던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한편 북한에서는 한국전쟁 이후 남아있던 일본의 잔재를 제거하였고 동구권 국가들의 집중적인 지원을 받아 도시를 정비하고 새로이 계획하면서 사회주의적 사실주의 미학을 추구하였다. 전후 복구사업이 어느 정도 진행된 1950년대 말에는 살림집을 건설하면서 과거 억눌렸

4. 미국정부의 건축과장 허먼 박사는 “근대식 건축은 입체적이어서 사용에 편리하나 예술품은 못된다. 한식 건축은 어느 나라 건축에도 지지 않는 아름다운 건축이니 잘 배워 전승하는 게 좋겠다.”고 충고하여 이를 계기로 조승원은 현대건축과 한식건축과의 접목을 시도하게 되었다. 金永寬, “오늘의 한국인-51: 조승원 씨”, 신동아 1982. 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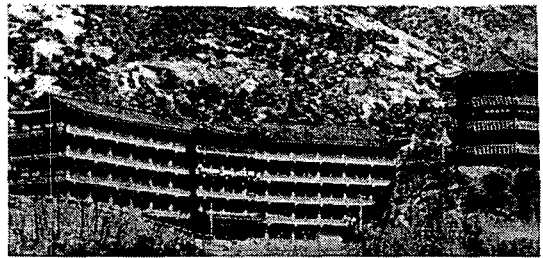


그림 14 서울여상(조승원, 1967) 외관
1957년에 지어졌던 춘천사범학교 도서관은 현존하고 있지 않아 그 형태를 알 수가 없으나 서울여상으로 미루어 짐작할 수 있다.

던 농민들이 꿈에 그리던 기와집을 고려하여 기능적인 설비를 갖춘 조선풍의 살림집을 계획하였다. 조선풍 살림집의 규모는 그다지 크지 않았으나 농민들의 염원을 담아 우진각 내지는 함각지붕을 올렸다.⁵⁾

그 외에도 큰 규모의 관공시설에 전통건축요소를 표현하여 기념성을 부가하였으며, 특히 1960년대 초반에 이르러서는 ‘조선식 건축’이라고 불리는 형식의 건축물들이 체계를 갖추었다. 이 ‘조선식 건축’이란 한민족의 건축양식을 건물의 용도와 현대적인 미감, 그리고 현대적인 재료와 공법에 맞게 비판적으로 개조, 발전시킨 것을 의미하며, 대표적인 건물로는 평양대극장(1960) 등이 있다.⁶⁾



그림 15 평양대극장 외관

광복 이후 남한과 북한으로 나뉘어져 각각의 통치체제로 굳혀졌던 한국은 한국전쟁 이후 전후 복구사업이 활발하던 동안 거의 동시에 전통표현이 재개되었다. 이것은 식민통치에서 벗어나 민족국가로서 자부심을 표현하고자 하는

5. 리화선, 『조선건축사 제2권』(서울: 도서출판 발언, 1993), 375-377쪽.
6. 리화선, 앞의 책, 385-386쪽.

의지에서 시작되었으며, 또한 정부가 자신의 정부가 한민족의 정통성을 이어받은 유일한 정부임을 확고히 하기 위한 것이었다.

4. 1960년 이후부터 현재까지

4. 1. 직설적 표현

1960년대에는 본질적인 의미의 근대화가 전개되었다. 전후복구사업이 어느 정도 정리가 되었고, 경제가 살아나면서 건축활동도 활발하였다. 생활을 압박했던 사회상황이 풀리자 건축의 형태도 다양해졌다. 1960년대 초반의 전통표현은 목조건축의 형태를 철근콘크리트 라멘조로 직설적으로 모사하는 방법이 주를 이루었다. 대표적인 예로 구 국립중앙박물관(강봉진, 1971)을 들 수 있는데 이는 화엄사 각황전, 금산사 미륵전, 법주사 팔상전을 불국사의 기단을 표현한 건물 몸체 위에 배열함으로써 고건축의 야외전시장과 같은 효과를 드러내고 있다. 그러나 고전을 새로운 재료(철근콘크리트)로 그대로 모사하여 일정한 원리 없이 배열하였다는 점, 그리고 기단부분에 모든 기능을 수용한 무리한 계획이었다는 점에서 많은 부정적인 비판을 받았다.

북한에서는 1970년대에 인민문화궁전, 인민대학습당(1982년 준공)을 비롯하여 많은 수의 조선식 건축이 건립되었다. 대부분이 거대한 규모의 건축으로 약 3-4층의 플랫폼과 같은 기단부 위에 크고 작은 건축군을 배치원리에 따라 조합한 형식으로 도시 내, 혹은 지방의 주요한 위치에 건설하였다.

직설적인 전통표현은 즉각적인 이해가 가능하기 때문에 전통계승에 관한 의도가 애매하지 않고 명확하게 드러난다. 따라서 통치수반이 자신이 이끌고 있는 정부가 유일한 한민족의 정통성을 계승한 정부임을 드러내고자 할 때 가장 명쾌한 방법이라 할 수 있다. 그러므로 1960년대 초반에서 1970년대에 이르기까지 전통표현은 직설적인 표현이 선호되었다. 이후의 건축에서도 직설적인 표현은 자주 나타나는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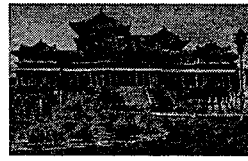


그림 16 인민대학습당 전경



그림 17 독립기념관 외관

그 이유는 표현이 내포하고 있는 명확성에 있다.

1980년대 후반 아시안 게임과 올림픽 게임은 국제적인 스포츠 행사로서 한국은 많은 외국인들의 주목을 받았다. 이에 문화인프라를 구축하면서 한국문화에 대해 이해가 부족한 외국인에게 강한 한국적 이미지를 심기 위하여 전통표현이 강요되었다. 저층의 건물에는 주로 기와지붕을 올리고 포작을 단순하게 처리하여 처마 아랫부분을 장식하였고, 고층의 건물에도 주출입 부분이나 로비 부분에 기와지붕을 모사한 형태의 눈섭지붕을 표현하였다.

한편 포스트 모더니즘의 개념이 유입되면서 건축계에도 전통표현이 긍정적인 시각에서 연구되고 적용되었는데 전주시청사(김기웅, 1985), 독립기념관(김기웅, 1985)은 그러한 이 연구의 결과이다. 전면에 상징체를 제시하고 다소 추상화된 건물부를 계획하여 기능을 해결하는 방법을 사용하였다.

직설적인 표현은 개개인의 개성이 증시되는 1990년대에는 건축가 각자의 표현형식이 개발되어 다양한 형태로 나타났다. 직설적인 표현의 경우 기단부에서 대부분의 기능을 해결하고 상징적인 이미지로써 목조건축형식의 건물을 올리는 방법이 주로 사용되었다. 그러나 현대적인 기능의 수용에 따라 건물의 규모가 커지고 단위 면적이 커지자 건물전체를 구성하는 조직원리가 새로이 짜여져야 했다. 따라서 디자인 요소로는 정면성을 강조하기 위하여 합각지붕을 올린 포티코를 돌출시키고 2개층 구조에는 서양의 베란다와 같이 난간을 둘러 퇴를 뚫음으로써 비례감을 조절하였다.

4. 2. 추상화된 표현

추상화된 표현은 직설적인 표현에 비하여 즉각적인 이해가 어렵지만 구조와 재료가 가지고 있는 독특한 특성과 함께 동시대적 미감을 보여준다. 그러므로 현대적으로 재해석된 문양과 장식은 건축을 감상하는 사람으로 하여금 전통적인 미감과 현대적인 미감을 동시에 느끼게 할 수 있다.

주한 프랑스대사관(김중업, 1961)이 계획되었을 때, 그 형태가 자아내는 한국적인 아름다움이 많은 사람들에게 회자되었다. 날아갈 듯한 덮개지붕은 전통적인 기와지붕을, 반듯반듯하게 짜여진 기둥과 보의 조직은 심벽구조를 연상케 하였다. 한국 현대건축이 시작되는 1960년대 초반은 세계적으로 회화나 건축에 있어 추상화(앵포르멜: informel) 운동이 활발하게 전개되었다. 주한 프랑스대사관은 동시대적인 흐름과 함께 하면서 전통적인 아름다움을 세계적인 시각으로 해석해 내었다고 볼 수 있다.



그림 18 주한 프랑스 대사관 전경

시간이 흐름에 따라 추상화의 경향은 변화하였지만 1990년대에 들어서도 지속적으로 나타나고 있다. 경기은행 수원지점(이영희, 1994)은 고층건물이면서 전체적으로 추상화된 표현을 보여주고 있다. 이것은 지붕과 몸체, 기둥의 3부구성을 중심으로, 지붕부에서는 전통적인 처마가 보여주었던 수려한 곡선을, 몸체에서는 절제된 아름다움으로 조직된 심벽구조를 표현하였다. 현대건축의 특징이라 할 수 있는 고층화된 건축에서도 전통표현이 가능하다는 것을

보여준 사례라고 할 수 있다. 이밖에도 추상화된 형태가 건물의 일부에 장식적인 요소로 표현된 사례도 있다.

직설적 표현은 목구조가 지니고 있는 구조적 솔직성을 철근콘크리트라는 재료로 외부로 보이는 형태만 비슷하게 빚어낸 것이라는 비판을 받았다. 따라서 추상화된 표현은 많은 건축가들에 의하여 각각 새로운 방법으로 연구되고 실험되었다. 국립현대미술관(김태수·김인석, 1987)과 같이 전통적인 성과를 모델로 하여 그 형태를 표현한 사례도 있는데 이것은 성과의 형태가 추상적이기 때문에 기능을 수용함에 있어서나 현대적 미감을 살리는 의도에도 잘 부합되기 때문이다.

4. 3. 새로운 시도: 공간적인 접근

1960년대 후반에 국립중앙박물관과 국립부여박물관 설계에 의하여 다시 제기되었던 한국건축의 전통론은 이후에도 여러 차례 언급이 있었다. 그때마다 전통론은 시대에 따라 그에 맞는 새로운 방향으로 전개되었으며 당시의 건축에 대한 생각을 반영하였다. 1970년대 후반에 이르면 전통건축의 연구성과가 하나둘씩 쌓이게 되면서 단일건축물의 구성원리 뿐만 아니라 건축을 에워싸는 공간을 구성하고 조직하였던 원리들이 밝혀지게 되었고 그에 따라 이를 현대건축에 적용하고자 하는 시도들이 일어났다.

원서동의 공간사옥(김수근, 1972)은 이러한 배경에서 새롭게 시도된 첫 건축사례이다. 한 층의 층고가 약 2.3m로 대개의 사무소 층고에 비하면 상당히 낮은데, 이것은 전통적인 살림집 居室의 공간감과도 일맥상통한다고 볼 수 있다. 전통적 주거의 실내높이는 몸을 굽혀 실내로 들어가도록 되어 있을 정도로 압축되어 있는데 공간사옥은 이것을 표현한 것이다. 그밖에도 여러 건축요소에서 인간을 압박하는 정도의 최소 스케일을 사용하면서 작으면서 안정감이 있는 공간감을 연출하였고 내외부의 각공간들을 유기적으로 조직함으로써 몸매 이미 익숙해 있던 공간을 재현해 내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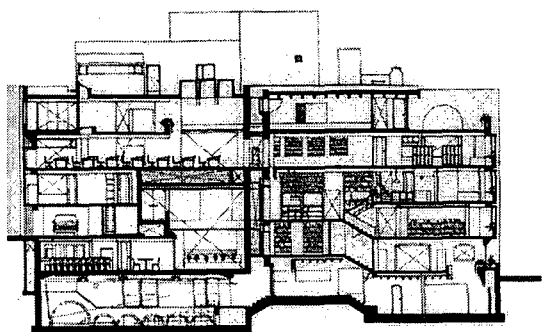


그림 19 공간사옥 단면도

이러한 경향은 1980년대 비슷한 시기에 건립된 국립진주박물관(장세양, 1984)과 국립청주박물관(송효상, 1981)에서도 이어져 나타난다. 국립진주박물관에서는 모든 기능을 내부공간으로 집약시키되 그것을 주공간과 부공간으로 대비시켰고 진주성 내에 위치하면서도 진주성의 공간개념을 해치지 않도록 건축의 형태를 은폐시켰다. 국립청주박물관은 단일건물 안에 대형공간을 두어 전시했던 기존의 박물관과는 달리 여러 작은 단위의 공간으로 나누고 그것을 다시 연결함으로써 건축군이 자아내는 조화의 원리를 표현하고자 하였다.

1990년대에 들어 이러한 공간감이 더욱 구체적으로 표현되는데 대표적인 사례가 수졸당(송효상, 1995)이다. 여기에서 형태적 전통 표현은 이미 찾아 볼 수 없다. 독립된 사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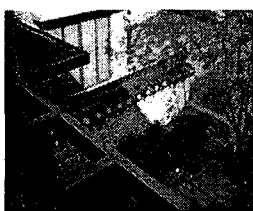


그림 20 수졸당 안마당

채와 본채로 되어 있고 본채에서 안방은 전이적 공간이라 할 수 있는 복도를 통하여 연결되어 있다. 이것은 세 개의 각기 다른 성격을 지닌 공간이 하나의 건축으로 조직되어 있음을 의미하는 것이다. 또한 마루로 짜여진 안마당은 마당의 소용이 현대적인 해석을 거치고 있음을 보여준다. 전통적으로 마당은 본채의 전면에 놓여 있으면서 건축의 일부였다. 수졸당에서의 마루마당은 내부에서 바깥으로 연결되

는 직접적인 행동의 연장을 훼손하지 않는다. 도시 내의 단독주택이 넓은 초를 확보하지 못하는 한계를 극복한 것이며, 좁은 처에 공간체함을 끊지 않고 연속시킴으로써 공간의 확장을 꾀할 수 있다.

4. 4. 소결

1960년대의 전통표현을 대표한다고 할 수 있는 주한 프랑스대사관, 1970년대의 공간사옥, 1980년대의 국립진주박물관과 국립청주박물관, 1990년대의 수졸당에 대하여 살펴보았다. 형태적인 표현에서 공간감의 표현으로 점진적인 전개과정을 살펴보면 짧은 시간동안이지만 다양한 변화가 있었음을 알 수 있었다.

건축에 있어 전통표현은 각 시대의 상황, 특히 정치·경제적인 상황과 밀접한 관련성이 있었는데, 1970년대 초반의 남한과 북한 모두 국가의 기틀을 갖추면서 국민들을 하나로 통합하는 모티브로써 전통성을 부각시켰고, 경제개발과 더불어 외국인들을 유치하기 위한 관광개발에 의하여 명승지에 신축되는 건축에 전통표현이 의식적으로 심어졌다. 1980년대 두 개의 국제 스포츠 행사는 많은 문화시설을 건립하는 계기가 되었고 한국적 이미지를 강조하기 위하여 전통표현이 개발되었다. 상대적으로 경제호황을 누렸던 1990년대에는 지방자치통치 통치하여 각 지방의 특색이 강조되면서 건축뿐만 아니라 거리의 조형물에도 나타났다.

시간이 흐름에 따라 전통론은 형태면에서 미니멀리즘적 해석으로 변화하였다. 형태에서의 표현은 자제되었고, 기능을 해결하는 공간에서는 단위공간들을 조직하는 원리로 재해석되어 표현되었다.

5. 결론

간단하게나마 전통표현의 변화과정을 살펴보면, 전통론이 각 시대에 맞는 생활, 문화, 제도 등을 수용하도록 변화되었고 이는 다시 건축에 있어 본질을 찾고자 하는 건축론에 연결

되었음을 알 수 있었다. 이것을 조금 구체적으로 분석하여 다음의 4가지 결론을 내릴 수 있었다.

첫째, 한국건축에서 전통표현은 근대기의 건축에서부터 나타난다. 외래의 건축문화가 유입되면서 기존의 건축이 변화할 수밖에 없지만, 변화된 상황에서, 한국건축이 그 특성을 잃지 않고 독자적인 건축자원으로 개발하기 위하여 전통표현이 제시된 것이다.

둘째, 한국 근대건축에 나타난 전통표현은 변화하는 현실생활에 대응할 수 있도록 새롭게 제안된 모델이었다.

셋째, 광복후 한국전쟁을 겪으면서 본격적인 근대화가 시작되는 1960년대 초까지 공백상태처럼 보이지만 표면적으로 드러나지는 않아도 지속적인 노력이 이루어졌다. 이때에는 새로운 구법-철근콘크리트 라멘조-로 전통적 형태를 모사하는 방법으로 나타났고 이것은 긍정적으로 수용되었다.

넷째, 현대건축에서는 많은 논의에도 불구하고 너무도 일찍 내려진 부정적 평가에 의해 정리되지 못한채 여러 방법으로 표현되었다. 그러나 대부분 형태적 수용 내지 계승은 부정적 견해로 일관되었고 기능적 공간적 수용이 타당하다는 인식을 공통으로 가지게 되었다. 다시 말해 현대건축에 있어 전통론은 현실에 가장 가까운 본질적인 건축을 추구하는 경향을 띠고 있다.

참고문헌

- 강만길. 『한국근대사』. 서울 : 창작과 비평사, 1994.
- 강만길. 『한국현대사』. 서울 : 창작과 비평사, 1994.
- 강재연. 『서양과 조선: 그 이문화 격투의 역사』. 이규수 옮김. 서울 : 학고재, 1998.
- 고병익 엮음. 『동아시아의 전통과 변용』. 서울 : 문학과 지성사, 1996.
- 김성기 엮음. 『모더니티란 무엇인가』. 서울 : 민음사, 1판1쇄: 1994, 1판4쇄: 1997.
- 노동은. 『한국근대음악사 [1]』. 서울 : 한길사, 1995.
- 신영훈. 『우리 문화 이웃 문화』. 서울 : 문학수첩, 1997.
- 이어령 엮음. 『한·일 문화의 동질성과 이질성』. 서울 : 신구미디어, 1993.
- 최원식·백영서 엮음. 『동아시아인의 '동양' 인식: 19-20세기』. 서울 : 문학과 지성사, 1997.
- 아오키다모스(青木保). 『일본문화의 변용』. 최경국 옮김. 서울 : 소화, 1997.
- Edward Shils. 『전통』. 김병서·신현순 옮김. 서울 : 민음사, 1992.
- Edwin O. Reischauer. 『일본근대화론』. 이광섭 옮김. 서울 : 소화, 1997.
- Edward Seidensticker. 『도쿄이야기』. 허호 옮김. 서울 : 이산, 1997.
- Hal Foster ed. *The Anti-Aesthetic: Essays on Postmodern Culture*. Seattle : Bay Press, 1983.
- Herbert Read. 『예술의 의미』. 박용숙 옮김. 서울 : 문예출판사. 초판1쇄: 1985, 초판7쇄: 1994.
- Jonathan D. Spence. *The Search Modern China* N. Y. : W. W. Norton & Company, 1991.
- 역사문제연구소 편. 『한국의 '근대'와 '근대성'의 비판』. 서울 : 역사비평사, 1판1쇄: 1996, 1판2쇄: 1997.
- 靑餘 李龜烈 선생 회갑기념논문집 간행위원회 편. 『근대한국미술논총』. 서울 : 학고재, 초판1쇄: 1992, 초판2쇄: 1995.
- 한국경제사학회 편. 『한국사시대구분론』. 서울 : 을유문화사, 1판: 1970, 11판: 1988.
- 『秀峯學園五十年史』. 1988.
- 김 원. 『韓國 現代建築의 理解』. 서울 : 열화당, 1976.
- 김동욱. 『한국건축의 역사』. 서울 : 기문당,

- 1976.
- 김홍식. 「民族建築論」. 서울 : 한길사, 1987.
- 리화선. 「조선건축사 제1권, 제2권, 제3권」. 서울 : 발언, 1993.
- 손세관. 「북경의 주택」. 서울 : 열화당, 1995.
- 손정목. 「開港期 韓國 都市變化過程研究」. 서울 : 일지사, 초판1쇄: 1982, 초판2쇄: 1984.
- 안창모. 「한국 현대 건축 50년」. 서울 : 재원, 1996.
- 임석재. 「한국 현대건축 비평」. 서울 : 예경, 1998.
- 尹一柱. 「韓國洋式建築80年史」. 서울 : 야정문화사, 1966.
- 한동수 위음. 「중국 근대건축 제 I 권, 제 II 권」. 서울 : 발언, 1994.
- 건축운동연구회 편. 「한국근대건축개론」. 서울 : 대건사, 1992.
- 故 尹一柱교수 추모논문집 편찬위원회 편. 「韓國近代建築史研究」. 1987.
- 한국건축가협회 편. 「韓國의 現代建築: 1876-1990」. 서울 : 기문당, 1994.
- 林洙. 「梁思成」. 한동수 옮김. 서울 : 발언, 1996.
- 太田博太郎. 「일본 건축사」. 박언곤 옮김. 서울 : 발언, 1994.
- 村松貞次郎·近江榮. 「近代化風建築」. 東京 : 岩破書店, 1988.
- 藤森照信. 「日本の近代建築 上·下」. 東京 : 岩破書店, 1993.
- 藤森照信·汪坦 監修. 「全調査 東アジア 近代の都市と建築」. 東京 : 大成建設株式會社, 1996.
- 中國建築史編輯委員會 編. 「中國建築簡史 第二冊: 中國近代建築簡史」. 北京 : 中國工業出版社, 1962.
- 編寫組. 「中國建築史」. 北京 : 中國建築工業出版社, 第2版1刷: 1986, 第2版3刷: 1988.
- Charles Jencks. 「근대건축운동」. 이용재 옮김. 서울 : 집문사, 1987.
- David B. Stewart. *The Making of a Modern Japanese Architecture*. Tokyo : Kodansa, 1987.
- Kenneth Frampton. *Modern Architecture : A Critical History*. London : Thames and Hudson, 1st published : 1980, 3rd Edition : 1980, Revised and enlarged edition : 1985.
- Paolo Portoghesi. *Postmodern*. Translated by Ellen Shapiro. N.Y. : Rizzoli, 1983.

A Study on the Expression of Traditionality in Korean Architecture

Chung, Soonyoung

(Graduate Student, Sungkyunkwan University)

Yoon, In-Suk

(Associate Professor, Sungkyunkwan University)

ABSTRACT

The subjects of the research is the architecture expressed traditionality from the time of the Open Port on, including North Korea region. The scope is divided into three periods; the first is from the Open Port to the Rehabilitation (光復,1945), the second is from then to 1960, and the last is from 1960 to the present.

The expression of Koreanity(韓國性) should be concerned with the states at the time. In the beginning of the first period the alienate culture and the new modern facilities, like electricity, telecommunication system, train service, etc., rushes to Korea and the traditional architecture accepted the most of the new-comings; therefore, the original form was transformed. That seems to be the beginning of the discourse on traditionality in Korea architecture.

The expression was showed up in four parts:

- Korea traditional architecture accepting the foreign culture and the modern facilities
- the compromise between foreign and traditional architectural form
- the compromise between the Modern and traditional architecture
- the Imperial Crown Style(帝冠樣式) which is the eclectic architecture with transformed roof.

The figurative expression in the present architecture was showed up in roughly two parts:

- the traditional form directly depicted wholly / partially
- the abstract traditional form wholly / partially

Moreover the results on the research traditional architecture have been collected, the principles have been drawn out. Especially the first beauty is not on form or figure of a building but on the composition of architectures and the harmony of the natural circumstances and architectures. So many contemporary architects make efforts to apply the principles to the composition and formation of current architecture.